

# 2024년 9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주)지에스리테일

## 1. 회의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24.9.27	강서N타워	8/10	1	6	15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서인주, 정사강, 이현규, 신영수  
최정혜, 한명삼, 김미경, 서현선

###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허남준(사업지원부문장)
- 경영진 외 : 신석한(심의팀장), 오주연(부장), 남효주(매니저)  
채호석(방송사업지원팀장), 오세영(부장), 배소희(매니저)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	-	-	13	13	-	13

## 나. 사업자 반영

구 분	수 용	의견 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13	-	-	13

\*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수용비율 기준으로 평가(활용비율 0%는 0점)

##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방심위 조치사항	<p><b>1. 방심위 이슈 사항 : 출연자의 품위유지 위반 관련</b></p> <p><b>심재응</b> 지난 회의 안건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습기 시연과 관련해서 시청자들이 설명서 및 주의 사항보다는 시연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가장 많이 기억하기에 가급적 문제가 될 시연을 하지 않거나 주의 사항을 더욱 명확하게 전달하면 좋겠다고 의견 주심. 이번 회의 안건은 문신과 관련한 것임.</p> <p><b>오세영</b> 이전에도 비슷한 민원이 있었음. 기본적으로 문신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음. 단지 시청자 윤리적 감정 및 미성년자 모방 우려를 고려해서 내부적으로 검열하는 것임. 지상파에서는 테이핑하고 나오지만, 당사에서는 그 정도로 제재하지 않음. 다만, 이번에 '중학생 아들이 연예인 문신을 보고 해달라고 조른다.' 라는 민원이 명확하게 들어와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안건으로 상정함.</p> <p><b>심재응</b> 복장에 대한 지적이 이전에도 있었음. 과하게 찢어진 청바지 때문에 시청자 민원이 들어왔었음. 시청자위원회 안건으로도 올렸으며, 복장 권리를 해칠 위험이 있어서 규정까지 만들기에는 과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음.</p> <p><b>오세영</b> 복장에 대해 '어떻게 입어 달라'까지는 하지 않지만 '단정하게 입어 달라' 정도의 안내는 계속하고 있음. 이번에는 내부적으로 복장 가이드를 만들고자 함. 출연자 업무 지침 형식으로</p>	<p>출연자의 문신(타투)에 대한 직접적인 법 및 심의규정은 없으나,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 및 미성년자의 모방 우려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검열중인 상황에서 영상에 나오는 출연자의 문신 노출 사례에 대해 확인하고, 시청자 입장에서의 의견 및 출연자 주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해 본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하지 않은 정도의 문신 및 노출에 대한 규제는 적절하지 않음</li> <li>- 오히려 문신 및 노출 부위에 포커싱 되는 카메라 방식이 아쉬움</li> </ul> <p>따라서 출연자 가이드를 마련하기보단, 제작진의 방송 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제작진 및 심의팀에 전달하였고, 추후 계속 모니터링하여 차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선 재 보고 후 개선하도록 하겠음</p> <p>계속 모니터링하고 개선하여 시청자 불편함 없도록 주의하겠음.</p> <p>[24. 9 조치완료]</p>	8월

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하고자 함.

**오주연**

여러 번 방송한 상품이며, 해당 연예인이 이전에는 라운드 티셔츠를 입고 출현했으나, 민원이 들어온 방송에서는 노출이 있는 셔츠를 착용한 것임.

상대적으로 다른 지적 사항은 없었으나, 새우를 먹다가 허리를 숙이면서 문신이 보이고 상품과 함께 클로즈업되는 정도였음. 테이핑을 하라고 지시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인 것 같음.

**김미경**

민원은 1건만 들어왔나?

**오주연**

1건임. 요즘 연예인들이 문신을 많이 하는 편이고, 다른 패션 흐름 방송에 출연하는 연예인도 팔에 한 문신이 잠깐씩 카메라에 잡힐 때가 있었으나 민원이 한 건도 없었음. 이에 내부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이 정도는 불편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방송하였던 건임.

**마경태**

요즘 추세를 보면 문신이 강조하여 표시됐다는 사실만으로도 혐오감, 불쾌감을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임. 따라서 문신의 크기나 비율, 내용 등을 고려해서 제한할 필요는 있어 보임. 예를 들어 신체 부위 중 문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70~80% 이상이 되는 이런 경우는 테이핑하든지 등의 기준을 정하는 게 바람직해 보임.

**심재웅**

위원분들 자유롭게 의견 부탁드립니다.

**서인주**

개인적으로 저 정도는 이상한 내용도 아니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괜찮지 않나 싶음. 부위나 비중 등이 잘 보이는 곳에 있는 과한 문신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걸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음.

**서현선**

더 자세한 가이드가 있는 데 의미가 있나 싶음. 이러한 옷을 입고 오면 이러한 문제 및 민원이 있었다. 정도의 피드백을 드리는 정도라면 자체적으로 교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

됨. 요즘 선택에 따라 드러냈다 안 드러냈다고 하는 것임.

### 정사강

문제가 되는가 찾아보니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에서 11년도 기사 중에 권고 조치 같은 게 있었음. 래퍼들은 대부분 문신을 하고 나오는 거여서 당시에 민원이 좀 들어왔었음. 그러나 18년 정도 들어서면서 제재하는 것보다는 자율에 맡기자고 얘기가 나옴. 그것도 5~6년 전임. 이레즈미 같은 조폭 문신을 청소년들도 많이 하는 걸 봤고 이런 것만 아니면 될 것 같음. 일상적으로 보고 따라하려면 이런 방송이 아니고도 인터넷을 통해 얼마든지 볼 수 있고 그걸 방송에서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궁금함. 어떤 연예인이 문신을 새겼다면 무슨 의미로 문신을 했는지에 대해 기사로 내주는 경우도 봤음. 그것까지 하나하나 방송에서 가능, 불가능 얘기를 하는 게 요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모호하긴 한 것 같음.

### 서인주

이러한 방송에 해당 민원이 들어온다면 모든 방송에 민원이 들어와야 할 것 같음. 많은 방송에서 문신이 나오니깐... 우리 애가 한다면 반대할 것 같긴 한데 해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이해가 감. 특히 연예인들은 많이들 하므로 그걸 규제하기에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어긋나는 느낌임.

### 김미경

홍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문신을 하고 있음. 개인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이지만, 문신이나 이런 건 열어놓고 생각해야 한다고 최근 생각 중임.

홈쇼핑을 보는 소비자의 경우, 쇼호스트도 그렇고 연예인도 그렇고 그분들에게 정보, 경험담을 듣고 싶어서 옆에 있는 것인데 정보 제공을 하는 데에 크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다면 본인을 보여주고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제는 열어놓고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음.

다만, 해당 방송을 보수적으로 본다면 그냥 서 있으면 문신이 보이지 않지만, 숙였을 때 보이는 것에 있어서 굳이 오픈한 셔츠를 입고 나왔어야 했나... 게다가 문신이 없었어도 살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야하다고 지적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임. 셔츠 단추 하나를 더 잠그지 않고 왜 문신이 보이게 했는지... 규제보다는 지금처럼 자율에 맡기고 본인들이 스스로 조심해서 관리하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음. 알려드리는 수준은 괜찮아 보임.

**신영수**

별로 문제를 못 느꼈음. 저런 세대는 아니지만 스포츠 UFC 방송도 보면 문신 안 한 사람이 없기에 아주 익숙한 느낌임. 홈쇼핑은 어떨지 모르지만, 기준이 많이 내려간 느낌임. 따라서 저렇게 단추 하나 더 잠갔으면 좋겠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생각해 보면 그렇게 제재해도 되나 싶기도 함.

만약 업무 지침을 만들면 홈쇼핑사나 협력사, 연예인 본인 중 누가 통제하는 것인가?

**오주연**

본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아닌지고 민되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가려주셨으면 좋겠다고 권고하는 수준일 것 같음.

**신영수**

굳이 과장해서 법적으로 해석하자면 공익적인 부분이 섞여 있는 부분이긴 함. 이런 청소년 이슈 등에 대해 협력사나 연예인을 통제하고 간섭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같음. 개인적으로는 전반적으로 괜찮아 보임.

**최정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자료를 봤을 때, 중학생 아들이 문신하게 해달라고 했다는데 아무리 백번 양보해도 이 방송만 보고 문신을 하게 해달라고 조르지 않았을 것 같음. 무수히 많은 요청을 하는 와중에 해당 홈쇼핑 방송이 눈에 띄어서 저 연예인도 문신을 하고 홈쇼핑하지 않느냐 했을 것 같음. 문신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하기에는 너무 만연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음.

다만, 상업적인 방면에서 놀랐음. 해당 연예인이 상품을 먹을 때 클로즈업이 되었음. 판매자 입장에서는 시선이 어디에 머무느냐는 엄청 중요한 사항임. 문신이 눈에 보이는 순간 시선이 확 뺏기게 됨. 상품 구매 욕구가 생기다가도 싹 사라지게 됨. 그래서 매출이나 이러한 측면에서라도 한 번 재고를 해보아야 할

것 같음. 많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 관심을 가짐. 시선이 떠나는 순간 매출에 타격을 받기 때문임. 회사의 매출 측면에서 해당 상품처럼 완판이 되는 게 아니라 재고가 남는 상품이라면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음.

#### **신영수**

문신 자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문신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상품 소개나 시식하는 순간에 클로즈업하여 문신이 도드라지게 보이는 건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함. 안 보이는 곳에 있는 문신은 어차피 봐도 인지를 못 할 터인데 클로즈업이 될 때 딱 보이는 것이 아쉬웠음.

#### **서현선**

그다음 참고 자료가 바지임. 연예인은 자기 노출, 표현을 많이 할수록 어텐션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해야 자신을 잘 보여줄 수 있을지 본능적으로 함. 규제적으로 맞출 수는 없다고 생각함.

연예인은 사람들의 호감도에 대해 굉장히 많이 고민하기 때문에 어떤 때에 네거티브가 나온 것인지 자세한 설명은 필요해 보임. 그래서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하는지 합의를 만들어 가며 연예인이 감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음.

#### **한명삼**

방송 목적에 충실한 것임. 일반 음악 방송이나 드라마를 볼 때 철저하게 대사나 배경, 음악에 집중하도록 제작하지만, 배우 개인의 문신이 나오는 순간 몰입도가 떨어지고 그 방송을 보는 이유를 흐리게 만듦. 프로의식을 갖고 철저하게 마케팅 부분에서 방송에 충실했다면 좋겠음.

#### **심재웅**

요즘도 연예인들이 문신한 것을 보면 불쾌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각오를 새로 다지는 의미로 문신을 새기는 등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음. 해당 방송 하나만 보고 민원인의 아들이 조르지는 않았을 것이기에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음. 가이드라인에 넓은 의미의 한 줄 정도로 과도한 불쾌감을 주는 이상이라든지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안 된다는 규정 정도로 뒤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

주로 나이가 많을수록 문신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에 나와 있음. 전체적으로 'TV 방송 출연자들이 문신을 하고 나오는 것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의 찬성 반대 비율이 거의 비슷함. 그중에서 충청도, 전라도 등의 지역에서 특히 반대가 많이 나왔고, 생각보다 여성들이 더 반대하였음. 연령대로 보면 50~60대이고, 직업별로는 전업 주부들이 70% 도 안됨. 성향은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 나왔음. 이런 걸 보면 홈쇼핑의 주요 고객층의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는 걸 봤을 때, 문신이 나오면 구매 욕구가 방해될 수 있을 것 같음. 마케팅 차원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넓게 가이드라인을 가져가되, 결국 제작을 할 때는 문제가 될 것 같다 싶으면 제작진들이 빨리빨리 판단해야 할 것 같음. 예를 들어 문신이 클로즈업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곳으로 앵글을 잡는다든지 하는 판단이 좋을 것 같음.

#### **정사강**

유명 랩 경연 방송 등에 나가 본인을 보여주는 영상이 있음.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문신을 하고 나온다면 분석 대상으로 보는 것 같음. 아무 이유 없이 새기지 않고 뭔가 그 주인공의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문신이 동원되는 것임.

홈쇼핑에서는 굳이 클로즈업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음. 따라서 마케팅적인 거나 불필요한 부분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문신에 대한 진단이 아니라 제작진의 판단에 따라 제재하거나 해야 할 것 같음.

#### **서인주**

방송을 열심히 보는 사람들의 경우, 문신이 확 눈에 띌 것 같음.

#### **심재웅**

자료 속 노란 텍스트 상자 안에 있는 문구는 실제 민원인가?

#### **오주연**

맞음.

#### **서현선**

적극적인 민원이 소수라지만 굉장히

<p>의심과 불만이 적극적으로 표현되는 느낌임. 그런 건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음.</p> <p><b>김미경</b> 홈쇼핑을 보는 시청자 자체가 연령대가 높고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다면 저런 민원을 일반적인 유튜브를 보는 소비자들보다는 많이 있을 거 같음.</p> <p><b>신영수</b> 해당 민원이 문신을 바라보는 시청자들의 표본으로써 상징성이 있으면 얘기하고 싶을 것 같음. 그러나 다른 사람은 문제를 안 느끼는 데 이례적인 반응일 수 있어 가늠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음. 대세의 반응인지 아닌지.... 오버한 반응을 하면 오히려 다른 시청자들하고 괴리된 경계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됨. 더불어 해당 연예인이 호불호가 있는 연예인일 수 있음. 앞서 말한 패션 흐름 방송의 연예인과의 이미지 차이 때문일 수도.... 평소 안 좋아했는데 하나 걸려서 민원 넣은 걸 수도 있을 것 같음.</p> <p><b>서인주</b> 현재 업무 가이드는 있는가?</p> <p><b>오세영</b> 있음.</p> <p><b>심재웅</b> 과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 같음. 패션이기에 관한 규제보다는 가이드를 작성한다면 넓게 넓게 내용을 담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함.</p>	
<p>총 건수</p>	<p>13건</p>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	-	-	-



##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24.1 ~ 2024.12)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윤경희	751216	現 중앙일보 이노베이션랩 부장	-	1년
김호중	670707	現 시민 옴부즈맨 대표	-	1년
서아론	840430	現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부장	-	1년

##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시청자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여부 ※ 활용 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실적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필수	○
토의안건 사전공지 및 상시적 의견 개선 창구 운영 (사전 검토를 위한 위원 게시판, 단체 채팅방 운영 등)	○

## 4. 기타사항

###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GS리테일 홈페이지	시청자위원회 월간운영실적	인터넷

##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23. 09~ '25.09.)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위원장	심재웅	•現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前 한국방송학회 총무이사	한국방송학회	언론관련 시민학술	
부위원장	서인주	•現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前 한국소비자업무협회 회장	한국소비자학회	소비자보호단체	
위원	정사강	•現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연구위원 •前 한국언론학회 총무이사	한국언론학회	언론관련 시민학술	
위원	김미경	•現 한국부인회총본부 사무총장 •現 대한화장품협회 광고심의위원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보호단체	
위원	이현규	•現 법무법인 김&장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위원	마경태	•現 법무법인 김&장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위원	최정혜	•現 연세대 경영학부 교수 •現 한국유통학회 이사	한국유통학회	유통단체	
위원	신영수	•現 경북대 법과대학 교수 •現 한국유통법학회 이사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단체	
위원	한명삼	•現 기아대책 행복한나눔 본부장 •現 사단법인 로템복지회 감사	기아대책 행복한나눔	사회소외계층	
위원	서현선	•現 한양대 사회혁신융합전공 겸임교수 •現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이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학부모단체	
변 동 사 항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방 심 위 조치사항	<p><b>1. 방심위 이슈 사항 : 대체 시연 관련 가이드 마련</b></p> <p><b>서인주</b> 이번 안건은 방심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에 시청자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이번 안건을 상정함. 각질을 가진 모델을 구하기 어려워 임의로 각질을 만들어 진행하였음. 최대한 명확하게 고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보이긴 했음. 방송을 보여주겠음.</p> <p><b>김미경</b> 아까 발 나온 게 왼쪽이 비포고, 오른쪽이 바른 후의 애프터인가?</p> <p><b>오세영</b> 맞음.</p> <p><b>서현선</b> 기만이라고 판단됨. 가장 안 좋게 보였던 포인트는 방송 멘트였음. 비포 앤 애프터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뭐든 비슷해보였음.</p> <p><b>서인주</b> 기만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자막이 나갔다는 것과 시연이나 이런 여러 문제와 어려움 등이 있다는 점에서 참작이 되어야 할 것 같음.</p> <p><b>심재웅</b> 노골적으로 거짓 고지를 하고 있음. 동일하게 "비포 앤 애프터를 보여드릴 건데..." 라는 쇼호스트의 멘트 자체가 너무 과한 멘트인 것 같음.</p> <p><b>오주연</b> 쇼핑 호스트 중 각질이 있는 사람을 시연자로 하여 바르는 모습을 고객들한테 설명 드려야 하는 부분이긴 했음. 비포 사진에서 각질을 심하게 바른 건 아니었음. PD나 쇼핑 호스트 분들은 각질이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저 제품을 사용하면 되겠다. 정도의 수준으</p>	<p>실제 각질이 아닌 임의 물질로 각질 연출 후 바르는 시연을 보여주면서</p> <p>① 탄수화물이라고 자막 고지 하였으나 실제로는 밥알과 딱풀로 연출하고,</p> <p>② 쇼핑호스트는 진짜 각질이라고 시청자 기망하였기에 방심위 출석하여 의견진술 예정임.</p> <p>해당 방송 영상 확인하시고, 시청자 입장에서의 개선 의견 및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모델 섭외가 어려운 시연에 대해서는 대체 시연으로 표현할 순 없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안건으로 제시함.</p> <p>해당 안건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구하고 적극 수용하여 개선 방안 마련하도록 하겠음.</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로 가볍게 바른 것임.  협력사에게서 원테이크 영상을 받았을 때, 인서트 사전 영상 제작물에 있는 모델들도 각질이 많은 모델이 섭외가 안 돼서 밥알과 딱풀을 으깨 바른 상태에서 찍었음. 당사에서도 임의 물질이라고 판단을 해서 탄수화물이라고 고지한 상태임. 아쉽게도 쇼핑 호스트가 그런 임의물질이란 것을 설명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진짜 각질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각질이에요."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오인성이 있는 것으로 전달이 되었음. 담당자도 나름대로 탄수화물이 전문이라고 생각해 자막이 나간 것 같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돼 임의 물질 나갈 때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게끔 고지를 했어야 했는데 아쉬움.</p> <p><b>서현선</b>  쇼핑 호스트, PD, 제작부서 등 각자 부서가 따로 움직이고 작업하다보니 모든 게 잘 맞춰지기 힘들 것 같음. 쇼핑 호스트는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자막과 전혀 별개로 얘기한 것 같음. 실제로 각질이 있는 분들이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쇼핑 호스트가 조금 더 표현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함.</p> <p><b>이현규</b>  방심위 규정에서 거짓 고지하고 오인가능성을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음. 오인 가능성은 충분히 부주의한 부분이 있었음.</p> <p><b>심재웅</b>  이건 일부러 했다고 볼 것 같음. 왜냐하면 관련 멘트도 안 했고, 자막으로 일부러 탄수화물이란 표현을 써서 좀 더 헛갈리게끔, 어렵게 받아들이게끔 했다고 비춰질 것 같음.</p> <p><b>이현규</b>  약간 거짓고지라고 하기 까진 어려울 것 같음. 오인가능성을 일으킨 부분은 있어 보임. 나중에 시정해야 할 부분임.</p> <p><b>김미경</b>  시연 과정에서의 소비자오인에 대한 기만 안건이 많은 것 같음. 그런 것은</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설명만 잘 해주면 되는데 이것이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 오히려 큰 카테고리 설명하느라 밥풀, 딱풀이라고 안 하고 탄수화물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p> <p><b>한명삼</b> 있는 그대로 했으면 큰 이슈가 없었을 것 같음.</p> <p><b>심재용</b> 쇼핑 호스트가 정확하게 전달받지 못했다면 탄수화물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멘트를 했을 것 같긴 함. 밥알, 딱풀이라고 명시되었다면 방송에 이렇게 나가는구나. 하고 직관적으로 알았을 것 같아서 아쉬움.</p> <p><b>신영수</b> 인서트 영상에 들어가는 이미지도 밥알로 되어있는 것인가? 여기도 연출된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비포 앤 애프터도 밥알인 것이고 이런 게 전부 문제인가?</p> <p><b>오세영</b> 인서트 부분보다는 방송 시연 부분과 멘트가 더 문제됨.</p> <p><b>신영수</b> 방송 시연이 제품의 효능과 관계가 없는 것인데 그 효과를 과장한 거라고 하여 문제가 된 것인지?</p> <p><b>최정혜</b> 방송 보면 유난히 자막이 흰색이었음. 자막 내용 자체가 잘 안 보임. 이것에 대한 말은 없었는지? 폰트가 흰색인 것은 일부러 안 보이게 하려고 밝은 화면에 밝은 색으로 폰트를 한 것인지?</p> <p><b>오주연</b> 자막 사이즈가 정해져있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원래 자막이 깔리는 밑부분은 어두운 바탕이기에 기본적으로 흰색 폰트를 사용한 것이었음. 기본 포맷을 적용했다보니 방송화면처럼 보여진 것임. 이 부분은 바로 시정하겠음.</p> <p><b>정사강</b></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이번 시연뿐만 아니라 자막 부서, 쇼핑 호스트랑 전체를 구성하는 PD님이랑 좀 더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음. 그렇게 했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 방심위까지 안 갈 상황이었던 것 같음. 시연 부분은 특별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음. 특히 실체가 아닌 이러한 시연을 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음. 그리고 쇼핑 호스트가 진행하는 영상만 봤을 때는, 자막을 보고 그래도 고지를 했다고 생각했음. 해당 영상과 유사한 광고가 많지만, 그 정도가 심한 것이 더 많음. 다만 쇼핑 호스트분이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과장된 부분이 드러난 것 같음.</p> <p><b>김미경</b> 다른 방송에서는 각질 제거 같은 제품을 시연할 때, 거의 다 밥풀로 시연하는 것인가?</p> <p><b>오주연</b> 대부분 이런 상품들은 인체 실험에서 효과 테스트를 먼저 한 것이기에 이를 바탕으로 시연을 보여주고자 한 것임.</p> <p><b>신영수</b> 저게 밥풀이 아니라고 해도 저렇게 비포 앤 애프터가 금방 확인이 되나? 저런 제품은 장기적으로 자기 전에 발라야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닌 것인가? 치료 효과 보다는 감추는 효과인가?</p> <p><b>최정혜</b> 맞음. 화장품 성분 자체가 녹여주는 것임.</p> <p><b>신영수</b> 저런 건 의약품은 아닌 거니깐. 처음에 의약품이라고 착각했을 때는 저런 건 장기간 효과를 확인해야 할 텐데 현장에서 시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었음. 다만, 화장품이라고 했으니 상관없을 것 같음. 더불어 직원들이나 일반인 중 실제 각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보여줘도 되지 않았나 싶었음.</p> <p><b>한명삼</b> 쇼핑 호스트는 지침을 안 봤다 하더라도 본인 발을 밥풀로 칠한 건 인지했을 텐데... 직접 발랐으니 분명 알고</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있음에도 불구하고 멘트를 안 한 것은 안타까움. 바르면서 나중에 방송이 될 때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여 밥풀을 붙였다고 한다든가 임의로 이런 걸 했다는 멘트를 했다면 좋았을 텐데 아쉽긴 함.</p> <p><b>최정혜</b> 이번 안건은 신고가 들어간 것인가 아님 지적이 들어온 것인가?</p> <p><b>오주연</b> 지적이 들어온 것임.</p> <p><b>최정혜</b> 이 안건은 방송을 본 실제 소비자들의 불만 접수나 이런 건 없나?</p> <p><b>오주연</b> 수분이 너무 많다든가 등 사용에 대한 불만은 가볍게 있었지만, 각질 제거가 안 된다. 이런 특별한 건 없었음.</p> <p><b>신영수</b> 첫 번째는 실제 각질이 아니라 밥알 이랑 딱풀이라는 점. 두 번째는 고지가 자칫 제품의 효능을 과장되게 보일 수 있다는 측면. 세 번째로, 소비자에게 비포 앤 애프터로 밥풀을 발라서 이러한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알리긴 알렸으나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런 게 포인트 같음. 인체에다 하기 힘든 샘플로 세척력을 보여줄 때, 과일을 활용해서 보여준 것 같음. 대충 이러한 효과가 있겠다는 걸 알려주는 정도로 방송 했다면 오인할 것이 없으니 괜찮았을 것 같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저런 마케팅이나 설명하는 것 자체는 각질을 보여주기 쉽지 않으니 최대한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는 걸로 보여준 것이라는 표현을 했으면 별일이 없었을 텐데... 공개해서 알려줬을 때 실질적이지 않았음.</p> <p><b>한명삼</b> 탄수화물 텍스트가 나왔기 때문에 인지를 다 하고 있었을 텐데...</p> <p><b>최정혜</b> 사실 각질은 단백질임. 밥알은 탄수화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딱풀은 탄수화물이 아님. 핵심 성분 일부를 누락</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한 걸로 보임. 각질이라는 단백질을 녹이는 건데 탄수화물이라고 고지한 것이 거짓 고지한 것이 아닌가? 아무 의미 없는 탄수화물로 고지한 것임.</p> <p><b>신영수</b> 개인적으로 누군가는 실제 각질을 보고 불쾌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음. 지나가다 한 번 때타올 방송을 봤었음. 때가 상세하게 나올 때 혐오감이 느껴졌었음. 다른 걸로 대체해서 보여줬어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함. 제품에 따라 속였다기 보다는 효과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다른 방식의 대체 방안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음. 중간쯤의 합의점을 찾아서 한다면 좋을 것 같음.</p> <p><b>마경태</b> 화면에 '탄수화물'이라는 자막 고지를 했지만, 시청자들이 그게 어떠한 의미인지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됨. 특히 쇼핑호스트가 연출에 대한 설명 없이 바로 화면에 맨발을 보이고 바로 시연을 해서 오인 가능성도 높아 보임. 본 사안과 같이 모델 섭외가 어려운 경우에는 녹화된 영상을 통해 모델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지 않게 시연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음.</p> <p><b>심재웅</b> 제품의 특성상 시연을 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영상은 시청자를 대상으로 거짓고지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함. 방송 초반에 쇼호스트는 "before and after를 보여드릴텐데..."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마치 실제 각질인 것처럼 언급하는 부분이 많아서 시청자 입장에서 오인의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됨. "이해를 돕기 위해 탄수화물로 시연한 것"이라는 자막이 나가긴 했지만, 이 자체가 시청자의 오인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함. 심의규정에서는 "특정 상품의 사용 전/후를 비교하는 화면을 활용하여 방송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위치, 조도, 밝기, 각도 등의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후를 지나치게 차이가 나도록 연출하여 상품의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그 우수성을 강조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명시하고 있음. 이 영상의 경우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거짓 각질보다는 해당 제품의 실제 효과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함</p> <p><b>서현선</b> 방송 멘트에서 "발의 각질들 비포 앤 애프터를 보여드릴 예정인데요"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밥알+떡볶"의 연출이라고 생각할 시청자는 없으리라 보임 "이해를 위해 탄수화물로 연출한 자체 시연"임을 자막으로 고지하였으나, 이 자막의 내용 만으로 각질을 연출했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하기 어렵고 자막자체도 너무 작게 처리되어 있음 "(시연 후)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많이 민망한데"라는 방송멘트도 있는데, 이 멘트는 마치 실제 발각질은 보여주어 민망하다는 의미로 시청자에게 전달되리라 생각됨 개선 의견을 드리자면, 실제 각질 제거 효과를 꼭 보여주고 싶다면, 실제 모델의 발에 상품을 바른 영상을 미리 찍어 방송 중에 송출하고 "사전에 촬영된 영상"임을 고지하는 방식이나 대체 시연으로 마네킹의 발 등에 이용하여 상품을 사용하는 예시를 보여주고, 각질 제거 효과나 원리는 그래픽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나으리라 생각함</p> <p><b>서인주</b> 쇼호스트가 기망한것은 사실이나 자막이 나갔다는 점, 이러한 기망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없고, 실제 시연에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야 할 것 같음. 개선할 점으로는,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자막을 좀더 확실하게 처리(현재 자막글씨가 작고 바탕색과 구분이 어려워 잘 보이지 않음)하고 쇼핑호스트도 연출된 상황임을 설명하는게 좋을 듯.</p>				